# 其의세계

w. 햐네

## - 사전정보 -

해당 시나리오는 인세인을 토대로 한 2차 창작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의도가 없습니다.

## 개요

봉마인들은 배를 타고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악천후에 파도가 커져 그만 휩쓸려버렸고, 눈뜬 곳은 아무도 없는 무인도. 아니, 모두 합치면 4명이나 표류되었으니 이제 무인도는 아니라고 해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곳은 대체 어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낯선 곳에 떨어져버리고 만 PC들은 혼란스럽습니다.

## 시나리오 정보

유형: 4인 3사이클 배틀로열형

월드세팅: 자유+반복되는 참극

- 인세인 5부작 캠페인 〈색의 세계〉 중 2편입니다. 단편으로도 플레이 가능합니다.
- 이전 〈적의 세계〉에서 PC3이었던 PC는 프라이즈 「안경」을 보유한 채 시작합니다.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 이 세계에서는 모든 사람(봉마인 포함)이 녹색만 볼 수 있습니다.
- 현실적인 고증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만, 대립 요소 강합니다.

## PC 공개사명

PC1	당신은 배를 타고 가다가 파도에 휩쓸려 무인도에 표류하고 말았다. 여긴 어디지 무서워!
	당신의【사명】은「살아서 이 섬을 나가는 것」이다.

PC2	당신은 배를 타고 가다가 파도에 휩쓸려 무인도에 표류하고 말았다. 무인도에 표류하기는 했지만 구석기 인간처럼 우리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언젠가 구조대가 찾아와주겠지.
	당신의 【사명】은 「어떻게든 살아남기」이다.
PC3	당신은 배를 타고 가다가 파도에 휩쓸려 무인도에 표류하고 말았다. 당신은 이 무인도에 관심이 아주 많다. 이 무인도에 대해 알고 싶다.
	당신의 【사명】은 「이곳은 어디인지 알아내는 것」이다.
	당신은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름 말고는.
PC4	당신의 【사명】은 「자신의 기억을 되찾는 것」이다.
	당신은 프라이즈 「식량」을 가지고 시작한다.

시나리오 사용 시 꼭 <u>공지 주의사항</u>을 읽어주세요.

후기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url.kr/2del9h

마지막 수정일: 2023.03.22.

※여기까지가 PL들에게 제시되는 내용입니다. 이하는 GM만 열람해주십시오.

## - 기본 정보 -

# 진상

PC4는 한참 전부터 이 섬에 표류해있던 인간입니다.

이곳은 지구의 섬이 아니라 화성입니다. 그리고 비행기도 사실은 비행기가 아니고 우주선이지요. 봉마인이 어째서 이러한 상황에 말려들었는지는 더 거대한 괴이의 음모일지도요. 여러분에 상상력에 맡겨두겠습니다.

# 특수 룰

- 이 세션에서 발생하는 전투 장면과 클라이맥스 페이즈에서는 맹공(2권 153p) 규칙을 적용합니다.
- 프라이즈 「식량」을 중첩해서 획득하게 될 경우 그 개수만큼 가지고 있게 됩니다.
- 〈적의 세계〉에서 PC3이었던 캐릭터가 이 시나리오에서 PC4가 되었을 경우, 방문 시 안경을 잃어버린 것으로 칩니다. 마스터씬 〈색〉을 생략해도 괜찮습니다.

# 광기카드

1권: 【의심암귀】, 【의존】, 【소외감】, 【말을 잃다】, 【패닉】, 【절규】, 【현실도피】, 【어둠의 축복】, 【실종 】

2권: [공포연쇄], [왜 나만?], [과대망상], [짜증], [적이냐 아군이냐]

반복되는 참극: [허무감], [미시감]

# 장면표

- 2 토끼 귀가 보여 그 아래를 쳐다봤는데 몸은 오리였다. 눈을 깜빡이니 사라졌다.
- 3 소금 냄새와 풀 냄새만이 가득하다. 정말 우리 이외엔 아무도 없는걸까.

4 파도가 철썩이는 소리가 귀를 때린다. 정체모를 동물이 우는 소리도 들려온다. 5 쿵- 쿵- 거리는 소리가 깊은 숲 안쪽으로부터 들려온다. 6 누군가의 발자국이 보인다. 누가 이쪽으로 걸었었나? 녹빛 살짝 도는 모래사장. 주위에는 떠밀려온 것 같은 쓰레기와 자연이 가득하다. 7 옅은 녹빛 하늘 아래 시커먼 새가 날고 있다. 흉조인가. 8 9 다리가 6개인 곤충이 떼를 지어 어딘가로 이동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10 빽빽하게 자라난 풀들이 걸을 때마다 다리를 끄는 느낌이 든다. 11 후다닥- 들짐승으로 보이는 무언가가 악취를 풍기며 쏜살같이 달아난다. 나무에 베리류처럼 보이는 열매가 매달려있다. 이걸로 오늘 끼니는 대충 때울 수 12 있겠다.(장면 플레이어는 프라이즈 「식량」획득.)

## - 본문 -

# 도입 페이즈

#### 〈마스터씬〉 배

• 등장인물: 없음

어둑어둑한 밤. 봉마인들을 태운 배가 철썩이는 파도 가운데 떠있습니다. 바깥 풍경을 감상하던 중, 갑자기 파도가 요란하게 치기 시작합니다. 배에서는 위험하니 얼른 안으로 들어가라는 방송을 따라 사람이 차례차례 들어갑니다. 그중에 뒤쳐진 봉마인들의 뒤로 거센 파도가 덮칩니다. 그 자리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 〈마스터씬〉 표류

• 등장인물: 전원

태양이 내리쬐는 모래사장. 그곳에서 쓰러져있는 봉마인들은 눈을 뜹니다. 앞에는 울창한 수풀림이, 뒤에는 녹빛 바다가, 아주 작은 무인도입니다. 이곳에 있는 건 4명뿐입니다. 주위를

둘러봐도 인공적인 것이라곤 본인들과 함께 딸려왔을 짐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만들어놓은 것 같은 것도 있군요. 《걱정》으로 공포 판정.

각자 자기소개를 하고 도입을 마칩니다.

◆ 핸드아웃 「모래사장」, 「떠내려온 짐」, 「움집」, 「숲」을 공개합니다.

## 메인 페이즈

#### 〈마스터씬〉 색

• 열리는 시기: 메인 페이즈 시작

• 등장인물: 〈적의 세계〉에서 PC3이었던 PC

해당 PC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생략해도 됩니다.

프라이즈 「안경」이 사라졌습니다. 모든 녹색이 옅은 노란색과 무채색으로 뒤덮여보입니다.

안경을 찾는 롤플레잉을 한다면 안경 대신 프라이즈 「식량」을 찾아 획득합니다.

## 〈마스터씬〉 배고픔

• 열리는 시기: 각 사이클이 끝난 후

• 등장인물: 전원

현대 문물이라곤 아무것도 없는 무인도. 점점 배고픔이 밀려옵니다. 이대로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면 기력이 빠져 기절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프라이즈 「식량」의 처리를 합니다.

2연속으로 식량이 없는 PC는 광기 카드를 1장 획득합니다.

#### 〈마스터씬〉 벌레 떼의 습격

• 열리는 시기: 2사이클 마지막 장면 후

• 등장인물: 전원

대체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독충 떼가 봉마인들을 발견하고 달려듭니다. 전투를 합니다. PC들이 승리한다면 승리한 시점에 탈락하지 않은 PC들만 전과로 프라이즈 「식량」을 획득합니다.

#### 〈마스터씬〉 곰의 습격

- 열리는 시기: 핸드아웃 「숲」 비밀 공개
- 등장인물: 해당 장면에 등장한 PC

거대한 무언가는 봉마인의 인기척을 눈치챈 건지 이쪽으로 쿵쿵거리는 소리를 내며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은 커다란 짙은 회색 곰이었습니다. 곰과 전투를 합니다.

전투 중 곰이 어빌리티 【피 냄새】로 획득한 PC의 거처가 있다면 메인 페이즈 중 자유롭게 전투를 걸어도 상관없습니다.

PC들이 승리한다면 승리한 시점에 탈락하지 않은 PC들만 전과로 프라이즈 「식량」을 획득합니다.

◆ 핸드아웃 「더 깊은 숲」을 공개합니다.

## 클라이맥스 페이즈

봉마인들은 깨달았습니다. 이 주변에는 아무런 배도 지나다니지 않고, 주변에는 아무런 육지도 보이지 않습니다. 유일한 탈출 방법이란 바로 비행기를 타고 나가는 것입니다. 1인용 비행기를 탈취해 나가기 위한 전투가 발생합니다.

클라이맥스 페이즈가 끝나는 조건은 탈락 여부와 관계없이 누가 먼저 의식 시트를 완성시켰냐입니다. 의식 시트의 진행은 모두 각자 다르게 진행합니다. 만약 1명 빼고 전부 탈락했다면 생략해도 됩니다. 전투에서는 맹공 규칙을 적용시킵니다. 누군가 탈락했을 시, 의식 시트를 가지고 있었을 경우 탈락시킨 이에게 자동으로 양도됩니다.

# 엔딩

## ▶의식 시트를 완성시킨 PC

다른 봉마인들을 제치고 조종석으로 들어가 출발할 준비를 하고 겨우 문을 닫고 하늘로 출발합니다. 엔진 소리가 점점 크게 들려오더니 점차 하늘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점차 가속해가면서, 저 하늘 끝까지 날아오를 정도로요. 비행기 뒤로부터는 빨간 불꽃을 튀깁니다. 그렇게 비행기는 구름을 뚫고 올라갑니다. 구름을 뚫고 올라가니 점점 하늘이 짙은 녹빛으로 바뀝니다.

······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는 것일까요? 비행기는 행성을 벗어나 우주까지 날아갑니다. 그 앞에는 푸른 지구가 보입니다.(이것이 광기에 의해 착각하는 것인지 실제인지 모른다는 연출을 해도 괜찮습니다.)

#### ▶남겨진 PC

비행기는 천천히 섬에서 떠납니다. 저 하늘 멀리, 보이지 않는 곳까지 날아갑니다. 남은 이들은 이제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PC에 맞춰 끈질기게 살아남거나, 배드엔드 표를 굴립니다.

#### ▶사명 달성 여부

전원: 의식 시트를 완성시킨 PC

## 데이터

〈핸드아웃〉 PC 비밀사명

	쇼크: 전원
PC1	당신은 이전에 무인도에 가본 경험이 있다. 당신은 직감으로 알 수 있다. 이곳은 절대 평범한 무인도가 아니다. 무언가가 이상하다. 하지만 정확히 그것을 알 수는 없다.

	당신은 초기 광기 (이질적인 언어)를 가지고 시작한다.
	이 비밀을 안 사람은 《우주》로 공포 판정.
	쇼크: 없음
PC2	당신은 삶의 마지막 여행으로 배를 타고 이동 중이었으나, 멀리서 오는 큰 파도를 보고 여기서 삶을 마무리 지어야겠다고 생각해 파도에 달려들었다. 그러나 기적처럼 살아버렸다. 이렇게 신이 내린 기회를 받으니 마음이 바뀌었다. 쉽게 죽어버릴 수는 없다. 나가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봤었던 이들을 다시 보고 싶다.
	당신의 【진정한 사명】은 「살아서 이 섬을 나가는 것」이다.
	쇼크: 없음
PC3	당신은 무인도에 관심이 많긴 하지만 여기서 계속 살 정도는 아니다. 게다가 곤충을 끔찍히 싫어한단 말이다! 곤충이 가득한 자연은 싫다.
	당신의 【진정한 사명】은 「살아서 이 섬을 나가는 것」이다.
	쇼크: 전원
PC4	당신은 이들이 오기 한참 전 이 섬에 혼자 표류해 살아가고 있었다. 혼자라 위험해해변 가까이서 적게 움직이며 구조대를 기다렸다. 그나마 식량이 같이 떠내려와서 겨우겨우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입이 늘었다.
	당신의 【진정한 사명】은 「살아서 이 섬을 나가는 것」이다.
	이 비밀을 안 사람은 PC4의 【거처】를 획득한다.

# 〈핸드아웃〉 모래사장

기본	비밀
파도의 물결대로 자국이 남겨있는 모래사장. 떠내려온 쓰레기 같은 것도 있다.	쇼크: 없음

모래사장에는 뭍혀있어 눈에 띄지 않았지만 안경이 있었다.
이 비밀을 처음으로 본 사람은 프라이즈 「안경」 을 획득한다.

# 〈핸드아웃〉 떠내려온 짐

기본	비밀
짐이 모래사장 여기저기 나동그라져있다.	쇼크: 없음
	짐을 뒤져보니 물과 포장된 음식이 들어있었다.
	이 비밀을 처음으로 본 사람은 프라이즈 「식량」 을 획득한다.

# 〈핸드아웃〉 움집

기본	비밀
누군가가 인위적으로 만든 것 같은 곳이다.	쇼크: 없음
	그 안에는 불의 흔적과 열지 않은 통조림이 있었다. 누군가가 여기에 표류했었던 적이 있었던 걸까?
	이 비밀을 처음으로 본 사람은 프라이즈 「식량」 을 획득한다.

# 〈핸드아웃〉 숲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선 이 숲을 헤치고 들어가야만 한다.	쇼크: 없음
이 핸드아웃은 폭력 분야 특기로만 조사할 수 있다.	확산정보. 헤치고 들어가니 커다란 생물이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 이런 작은 무인도에 이렇게 큰 생물이 살 수 있을까? 그 걸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며 쿵쿵대는 소리로 바뀌기 시작한다.
	이 비밀을 안 사람은 《소리》로 공포 판정. 마스터씬 〈곰의 습격〉을 진행한다.

# 〈핸드아웃〉 더 깊은 숲

기본	비밀
더 깊은 곳으로 이동하니 아직 나무와 풀이 가득하지만, 저 멀리 탁 트인 곳이 보이기 시작한다.	쇼크: 없음 더 들어가니 탁 트인 공간이 나왔다. 그나마 낮은 풀들이 깔린 넓은 공터 가운데에 작은 비행기가 서있다.
	핸드아웃 「비행기」를 공개한다.

# 〈핸드아웃〉 비행기

기본	비밀		
조금 녹슨 겉면이 오래되어 보인다.	쇼크: 없음		
	내부 구조를 보니 조종석에 앉는 사람만 탈 수 있는 1인용이다. 주위를 보다가 조종석 구석의 서랍 안에 있는 설명서를 발견했다.		
	이 비밀을 본 사람은 의식 시트 〈비행기 조종〉를 획득한다.		

## 〈프라이즈〉 안경

## 기본

이 안경은 색맹인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교정 안경이다. 이 안경을 사용하면 적녹색맹인 사람도 녹색을 볼 수 있다.

이 프라이즈는 타인에게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이 프라이즈는 비밀이 없다.

## 〈프라이즈〉 식량

## 기본

2권 182p에 실린 프라이즈 「식량」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 에너미 독충 떼

2권 185p에 수록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 에너미 곰

2권 185p에 수록된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의식 시트 〈비행기 조종〉				
단계	절차의 이름	참가 조건	지정 특기	패널티
1	조종석에 올라타기	없음	임의	윤
2	이륙 준비	없음	《기계》	다음 판정에 -2
3	비행기에 붙은 이들 떨쳐내기	없음	【폭력】 분야	생명력 -1

식량을 찾는다면 RP과 관련된 적당한 판정을 통해 프라이즈 「식량」을 주어도 괜찮습니다.

〈적의 세계〉에서 PC3이었던 PC는 메인 페이즈에서 안경이 벗겨진 상태로 시작하기 때문에 녹색으로 비춰지는 것들을 전부 옅은 노란빛이 도는 색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에 관해선 메인 페이즈 첫 번째 마스터씬 〈색〉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 - 후기 -

전혀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이긴 합니다. 개그 시날이 아님에도 반복되는 참극 월드세팅을 사용하는 캠페인이기에 만들 수 있었던 스토리라고 생각합니다. 월드세팅 예시에 들어있는 화성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 제작된 시나리오입니다. 내용 자체는 전혀 다르지만요.

고증을 따지자면 애초에 배에서 떨어졌는데 화성이고, 비행기가 아니라 우주선이고, 그것을 설명서만 보고 조종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네요. 하지만 이런 감성도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PL가 아예 예상할 수 없으니까요.

플레이 후 후기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https://forms.gle/gp6r3WtiXhD99DAq6)